



기획시리즈



임경빈  
전 서울대 교수

# 조경수목산책 (Ⅱ X Ⅲ)

## — 박달나무 —

### 박달나무와 우리의 삶

박달나무는 자작나무과에 속한다. 자작나무과에는 경제적으로, 미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소중한 나무들이 많다. 자작나무과에는 자작나무속, 오리나무속, 서어나무속, 새우나무속, 개암나무속이 있다. 이러한 과와 속의 나눔은 사람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개암나무 종류를 자작나무과에 넣지 않고 따로 독립된 과로 내세운 분류도 있다.

여기에서 새우나무란 우리에게 좀 생소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것은 이 나무가 제주도, 그리고 해남, 완도 등 남쪽 해안가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작나무과에는 우리가 익히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 삶의 주변에 맴돌고 있었다.



▲박달나무의 노거목, 향로봉 해발고 600m 1992. 5. 15

박달나무는 “홍두깨 방망이”라 해서 안방에서 어머니와 아주머니들의 손에 돌아나는 생활의 기구였다. ‘문경새재’의 박달나무는 모조리 홍두깨 방망이감으로 된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 왔다. 다듬잇돌 대신에 나무로 만든 것도 있었다. 침석(砵石)이 아니라, 침목(砵木)인 셈인데 돌이 더 숭상된 것은 돌 표면이 평활하고, 굴곡이 없으며, 단단해서 다듬잇감을 잘 쳐받쳐 주어서 다듬이질이 효과적으로 되는데 있었다. 나무로 다듬이 받침을 만들면 좋기는 했으나 만일 나무면이 갈라지는 일이 있으면 그곳을 피해서 다듬이감을 두어야 한다. 박달나무로 받침대를 만들면 터지는 일이 없어서 좋았다.

필자가 어릴 때 우리집 산에서 큰 개살구나무를 끊은 일이 있는데 그때 동네 어른들과 상의해서 굵은 줄기에서 다듬이 받침을 얻기도 하고 나무가 갈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둥치를 동네 어구에 있는 못물 속에 넣고 3년을 기다린 뒤에 다듬이 받침을 만들기로 했었다. 3년을 기다린 뒤에 만든 받침에 아깝게도 금이 가서 명주천을 다듬이질 할 때에는 틈새를 피해서 천을 두고 방망이질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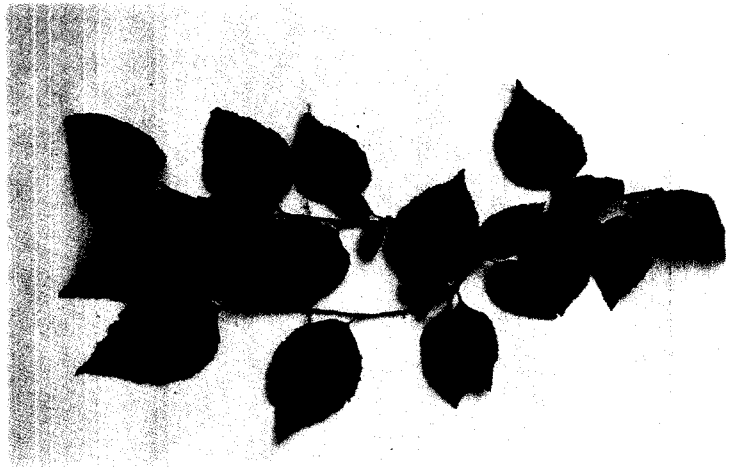
만약 그때 그것이 박달나무였다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오래된 박달나무의 줄기, 향로봉 해발고 600m, 1992. 5. 15

### 박달나무

박달나무는 높게 자라는 교목이고, 잎은 난형(卵形)에 가깝고 잎의 아래쪽은 둥글며(圓脚) 잎자루의 길이는 1cm이하이다. 잎의 측맥은 7-8쌍이고, 잎의 가장자리에는 가는 톱니가 발달해 있다.



▲박달나무 잎과 열매. 임목육종연구소내, 1997. 6. 30

앞표면은 녹색이지만 잎 뒤는 다소 흰 빛을 띠는 푸른색이다.

열매는 위를 향해서 서고, 과수(果穗)의 길이는 2-3cm쯤 된다. 꽃대는 아래로 드리운다.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일본, 만주, 우스리에도 난다. 목재는 기구재, 차량재, 세공재 특히 조각재로 쓰인다.

과수의 길이가 3-4cm로 더 길고, 잎의 톱니가 더 고르지 못한 물박달나무가 있는데 모양, 생태적 특성, 쓰임새 등은 박달나무와 많이 닮아 있다.

### 자작나무속 수종의 진화

‘박달나무’와 유연 관계가 가까운 것으로 자작나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쪽 산지에 주로 나는 것으로 남쪽에서는 좀 생소한 나무이지만, 지금은 묘목이 양성되어 조경용으로 흔하게 심어지고 있다. 줄기가 유별나게 희고



▲오래된 박달나무. 봉화. 백천골.  
1985. 3. 6

청초하게 보여 '숲의 귀부인'으로 말할 수 있다. 잡스러운 것을 떠나 고결한 품위를 지닌 귀족적 나무라고 할 수 있다. 먼지 많고, 시끄러운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나무이다.

외국 학자의 연구 보고로서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각 속(屬)의 진화과정의 언급이 있는데 흥미 있는 대목들이 있다.

기록에서 다음을 읽을 수 있다.

자작나무과 식물은 북반구에 넓게 분포하는 낙엽성의 교목, 아교목, 또는 키 낮은 나무로서 대개가 유럽, 북미, 아세아 등 근대 문명이 발달해 온 온대지역에 자라고 있고, 인간들의 생활에 녹아들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서어나무의 잎. 전북 장수지방. 1989. 6. 22

생태적으로 가장 소중한 위치를 자리잡고 있다.

자작나무과의 수목은 암꽃에 화피(花被)가 있는 개암나무 아과(亞科)와 수꽃에 화피가 있는 자작나무아과로 나누어진다.

개암나무아과→새우나무속, 개암나무속, 서어나무속 등(염색체 수 n=8)

자작나무아과→자작나무속, 오리나무속 등(염색체 수 n=7)

이러한 속에 대한 형태적 특성과 분자생물학적 특성의 결과는 서로 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 결과는 화석이 처음 나타난 시대와도 잘 대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흥미롭고, 신기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자작나무아과의 오리나무속, 자작나무속은 8천만 년 전에 출현했고 개암나무아과의 개암나무속은 6천 7백만 년 전에 나타났고, 서어나무속과 새우나무속은 6천

만 년 전에서 4천 1백만 년 전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자작나무아과의 오리나무속과 자작나무속은 기본적 형질을 가지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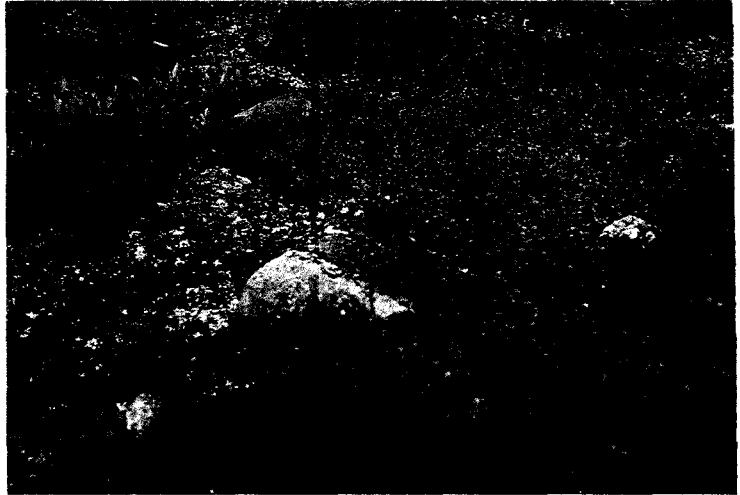
▲서어나무의 수형목(전북1호) 덕유산.  
1992. 10. 25

서 계통적으로 오래된 종족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생물의 진화를 분석하는 한 방편으로서 염색체수가 있다. 생물은 긴 세월을 살아 오면서 변천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이때 적응하는 방편으로 불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를 포기하는 수단을 쓰기도 했다. 말하자면 염색체의 수를 감소시켜 가면서 지질시대를 살아남아 온 것으로 본다. 때로는 염색체의 일부분을 끊어 없애으로써 살아남는, 다시 말해서 진화의 길을 걸어오기도 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새우나무속과 서어나무속의 염색체의 기본수, 즉 1배체(倍體)의 수는  $n=8$ 이고, 오리나무속은  $n=7$ 이므로 자작나무아과의 속들은 개암나무아과의 속에서 진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박달나무나 자작나무는 소위 식물의 천이(遷移)에 있어서 선구 수종이고,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태적지위(生態的地位)를 점



▲난쟁이 자작나무. 스웨덴 키루나지방. 1974. 8. 21

유해 온 진취적 종속들이다. 이처럼 다른 종족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갈 곳을 찾아내어 번영해왔으므로 그렇지 않은 종족의 수종에 대해서 새로운 종족의 식물군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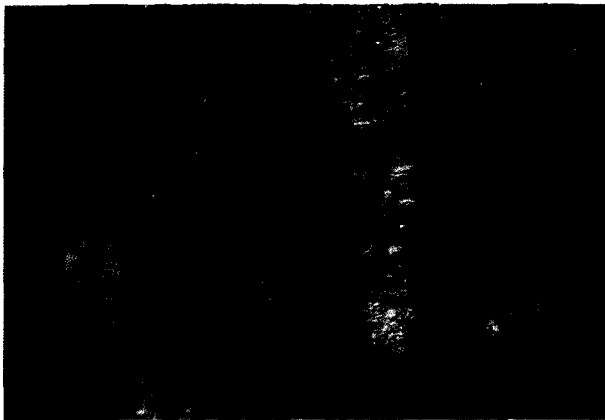
### 화학성분으로 본 자작나무의 무리

나무의 분류는 내외부의 형태를 보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그 나무가 몸 안에 함유하고 있는 화학적 성분으로서 분류체계를 잡아보는 일들을 한다.

이미 언급한 적이 있지만 박달나무, 자작나무가 소속되는 자작나무 속 식물은 북반구의 온대부터 아한대를 중심으로 해서 50여 종이 분포해 있다. 그 중 우리나라에 10여 종이 기록되어 있고, 일본에 11종, 중국에 29종, 북미주에 9종, 유럽에 5종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많은 종이 분포해 있어서 소위 일화(日華)지역이 자작나무속 수종의 분포중심이고, 그 안에 자작나무속나무의 계통이 유지되어 '풍부한 유전자의 창고지대'라고 말할 수 있다.

자작나무속은 북극 주변을 둘러싸는 온대림과 북방림(北方林)을 대표하는 나무들인데 극지대의 툰드라에 있어서는 나나자작



◀어린 박달나무의 줄기. 임목육종연구소 구내. 1997. 6. 30

나무(nana birch, 나무백과(1), 296면에 사진)처럼 땅을 기어가는 낮은 나무로도 존재한다. 이처럼 자작나무속의 나무들은 넓은 적응역(適應域)을 가지고 있다.

자작나무속의 나무들은 봄, 잎이 피어날 때, 좋은 향기를 내보낸다. 향기의 성분은 자작나무속의 수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향기의 성분을 조사하므로써 종의 구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잎이 피어날 때, 자작나무 숲에 들어가면 그 향기 때문에 황홀한 느낌에 젖을 수 있다. 그 향기에는 사람의 기분을 흥분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산림의 정서를 들뜨게 하는 작용을 한다. 나무는 몸 안에 휘발성의 정유성분을 가져 향기로서 인간의 건강을 돕게 되고, 우리는 산림욕(山林浴)이라 해서 그 효과를 잘 인정하고 있다.

식물분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작나무속 나무를 향기를 기준으로 해서 8가지 계통으로 나무가

있으며, 이때 자작나무속 수목의 향기성분의 기본형은 '박달나무'라고 믿고 있다. 박달나무는 자작나무속에 소속되는 모든 수종이 가지고 있는 향기의 성분을 대소간에 모름지기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수종의 선조형(先祖型)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박달나무를 진화의 출발점에 내세우는 것이다. 박달나무의 분포의 중심은 우리나라이므로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작나무속 수종들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채목(사스래)은 우리나라 높은 산지에 나고, 일본에도 있는데 그 분포로 보아 아세아 북쪽의 태평양 요소라고 지목되고 있다. 백두산에서 절묘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산림한계를 만드는 토지적 극상수종으로 되어 있다.

이 나무가 극상수종으로 행세할 수 있는 이유의 하나로는 수명이 길다는데 있다. 평균수령이 200년을 넘는다. 고요한 아침의



▲아름다운 거제수나무의 수피.  
향로봉 해발고 700m. 1992. 5. 15

고채목 숲이면 나무에서 발산되는 성분(피톤치드)으로 푸른 노을이 지고, 그 안을 지나면 황홀한 기분에 매료되고 만다. 수액이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거제수나무의 향기는 분류상 고채목 무리에 소속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개박달나무는 향기의 성분상 박달나무에 가깝다.

향기는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고 유용한 것이다. 이러한 향기를 만드는 박달나무, 자작나무 등이 새삼 소중한게 느껴진다.

### 박달나무의 분포

박달나무는 높게 자라며, 비교적 오래 사는 나무로서 대체로 추



▲자작나무의 잎과 열매. 임목육종연구소 구내. 1997. 6. 30

운 지방에 자라는 것을 즐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일본, 만주, 우스리에도 있다. 기록에 보면, 설악산과 묘향산 부근에 특히 많다고 했는데, 나는 강원도 향로봉의 낮은 산허리 쪽에서 큰 나무들을 볼 수 있었다. “문경세재 박달나무, 흥두개 방망이로 다 나간다.”는 민요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면, 문경세재 쪽에도 박달나무의 자원이 풍부했던 모양이다. 박달나무는 재질이 뛰어나고 쓰임새가 다양해서 많이 끊겨 나가서 지금은 그 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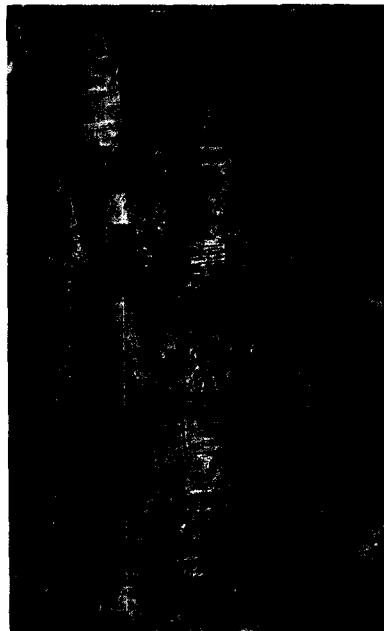
박달나무는 줄기가 비교적 곧게 서서 자라는 경향을 가지고 자람의 속도는 늦은 편이나 수고가 20m쯤에 이르고, 줄기 직경 60cm의 것을 찾을 수 있다.

박달나무의 한자명은 단목(檀木), 박달목(朴達木), 초유(楚楡) 등이다. 일본 사람들은 이 나무를 「도끼 부러지는 자작나무」라는 뜻으로 「오노오래감바」라고 부른다. 나무가 매우 단단해서 나무를 끊을 때 도끼날이 망가진다는 뜻이다.

한자로 朴達로 쓰는 것은 우리 말 박달에 음이 가까운 한문자를 갖다 붙인데 지나지 않는다. 충청 북도에 박달재라는 고개가 있고, 구수한 노랫가락도 있다. 그곳에 박달나무가 많아서 이러한 이름을 얻지 않았나 생각해 보기도 한다. 노랫가락의 일부를 보면 지난 날 우리 겨레가 살아온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해서 감미로운 상황을 자아내고 있다.

천등산 박달재를  
올고넘는 우리님아.  
물항라 저고리가  
긋은 비를 젖는구려.  
왕거미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구비마다.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물박달나무 수피의 아생미. 임목육종연구소구내. 1997.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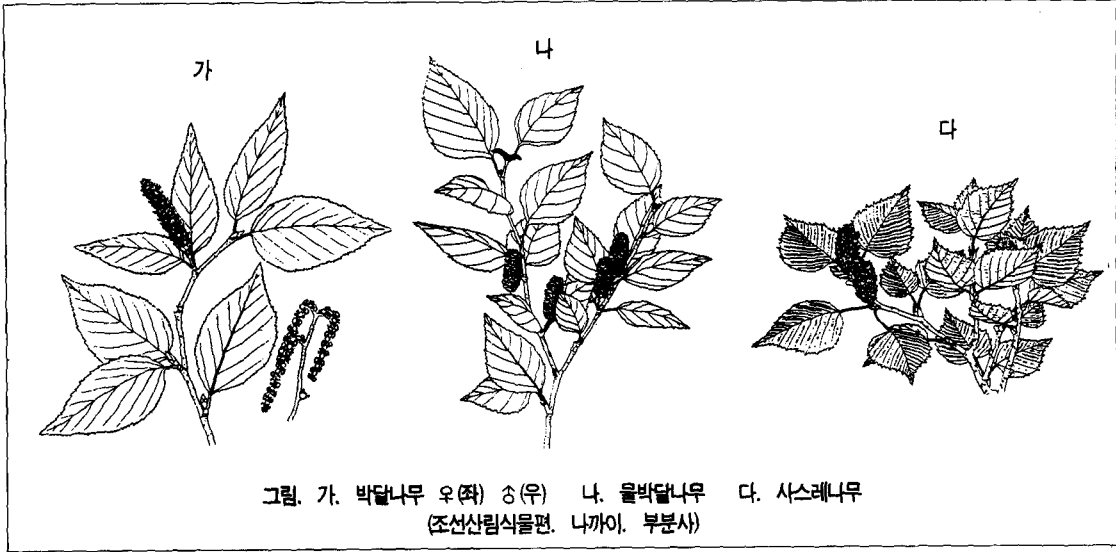
이때 ‘항라(亢羅)’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은 날을 셋 또는 다섯 짝을 몰아 성기게 짠 여름 옷감이다. 이 항라저고리가 비를 맞아 살갓에 붙었으니 함께 길가던 사람의 시선을 모으는데 충분했으리라고 짐작된다.

박달나무는 껍질이 암회색 때

로는 검게도 보인다. 열매를 단대궁이 뺏뺏하게 위로 선다. 박달나무와 인연이 가까운 자작나무는 줄기 색깔이 흰 편이고, 열매대궁이 아래로 드리우는데 다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작나무는 이북에서 나고, 이남에서는 자생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백두산에 많은 사스래나무(고채목)와 수액을 이용하는 거제수(去災水)나무도 박달나무에 가까운 친척의 나무들이다. 모두 식물학적으로는 「베툴라(Betula)」속에 소속시키고, 영명은 「버치(Birch)」이다.

## 박달나무의 이용

박달나무의 목재는 목리가 치밀해서 도장(인장재)용 목재로써 쓸모가 승상되고 있다. 전에는 도장이라 하면 회양목 도장을 말했고, 그래서 회양목을 도장나무라고 했다. 지금 회양목 도장을 말했고, 그래서 회양목을 도장나무라고 했다. 지금 회양목의 목재자원이 거의 고갈되다시피해서 이것을 대체할 나무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 대체재가 바로 ‘박달나무’이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재는 거제도 자작나무라는 말이 있는데 생각건대 박달나무나 자작나무나 목재의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용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거제도에 자작나무의 대집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곳에 지금 자작나무의 자원이 없



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이 박달나무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박달나무가 조각재로 이용되고 또 인장재로 쓰일만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목재가 단단해서 도장을 만들었을 때 깨어지는 일이 없고, 인육이 잘 묻고 선명하게 인형(印形)을 남기며, 목리가 아름다워서 품위있게 보이는데 있다. 박달나무의 목재는 머리빗 등 각종의 세공재로써 잘 이용되어 왔다.

### 박달나무의 노래

박달나무는 오래되면 수피가 두꺼운 코르크질로 변하고, 산불의 해를 견디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한다. 박달나무의 심재는 특히 재질이 치밀하고, 시경에 있어서 단(檀)이라 하는 것은 이 나무를 두고 말함이다.

시경 정풍(鄭風)에 장중자(將仲子)의 노래가 있다. 그 끝쪽만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將仲子兮 장중자혜  
 無踰我園 무유아원  
 無折我樹檀 무절이수단  
 豈敢愛之 기감애지  
 畏人之多言 외인지다언  
 仲可懷也 중가회야  
 人之多言 인지다언  
 亦可畏也 역가외야

임이여, 부탁하노니,  
 우리 밭에 들어오지 마오.  
 내가 심은 박달나무 끊지마오.  
 남들의 말 두려워요.  
 임은 그렇지만,  
 사람들의 말,  
 역시 두려워요.

<참고>

仲: 사랑하는 남자를

豈敢: 어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懷: 마음 속으로 생각하다.  
 檀: 박달나무로 하여 둔다.

이 노래는 거절하므로서, 반대로 유혹을 버리는 사랑의 흥정 이야기가 그 줄거리이다. 여자가 강인한 박달나무를 그의 보호물로 내세우고, 이 나무를 끊지 말아달라는 바램같은 뜻이 있으나 이미 그곳에는 담장을 넘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해서 나무를 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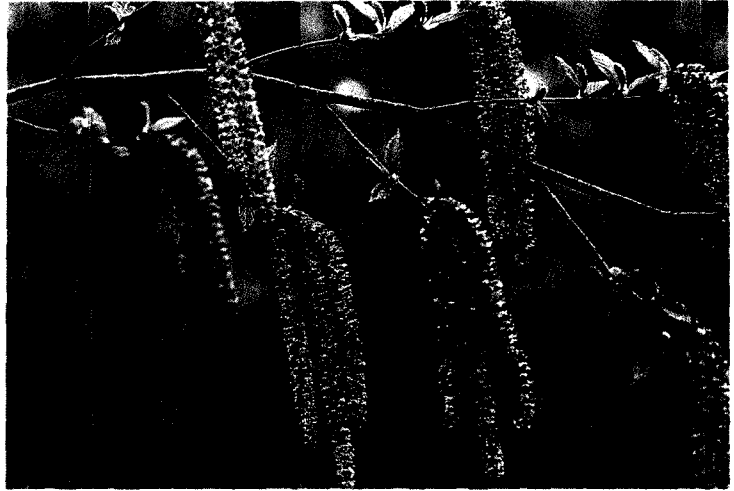


▲ 자작나무의 수피. 임목육종연구소구내 1997. 6. 30

는다는 위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는 저항을 물리치고 앞으로 돌진해 나가고, 여자는 금지하면서도 그 침입을 용서하고 나선다. 박달나무가 여자를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이 장치의 파괴보다는 남의 눈과 말이 더 두렵다는 변명이 있지만 이것은 결국 남자로 하여금 그것을 돌파시키는 용기를 주고 있을 따름이다.

박달나무를 자기를 보호하는 물체로 해석하는 대목은 더 있다. 시경 '학명(鶴鳴)'에 보면, "나의 딸을 즐기며 그곳에 박달나무를 심었다"는 시구가 있는데, 이때 박달나무는 자기의 터전을 침략당하지 않겠다는 굳센 방어장치를 해석되고 있다.

시경에 벌단(伐檀)의 노래가 있다. 박달나무를 끊는다는 제목의 내용이다. 즉 박달나무를 팡팡 찍어서 황하가에 쌓아 두고, 수레의 바퀴살 만들어 내고, 팡팡 수레바퀴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레를 만들기 위해서 박달나무를 끊고, 그것으로 바퀴살과 바퀴를 완성시켜 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황하변에서 이 광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만들어진 수레가 사냥용이고 이것을 배에 실어서 다른 곳으로 운반해 간다는 내용이 그 안에 있다. 이 시는 박달나무가 수레용재로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단차(檀車)라는 말이 있다. 단차는 때로 병차(兵車)를 뜻하기도 했는데, 역시 시경에 목야(牧野, 옛적의 전쟁터)를 말한



▲자작나무의 옹화서(雄花序) 임목육종연구소 구내 1997. 4. 9

다는 넓고 넓은데 단차 즉 전쟁용 병차가 흰빛 빛난다는 대목이 있다. 박달나무의 수레는 단단해서 전쟁용으로도 나간 모양이다.

### 개국신화와 박달나무

우리나라의 개국의 이야기를 보면 하늘나라에서 환웅(桓雄)이 웅당목(雄堂木, 박달나무) 즉 신목(神木) 아래로 내려와서 나라를 다스렸다 한다. 즉 그는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내려와 신시(神市)라고 일컬었다 한다. 우리 민족은 우주의 광명을 그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태백산의 숲을 광명신이 거처하는 곳으로 믿었다.

이때 신시가 개설된 그곳의 나무가 박달나무라고 믿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단군기원(檀君紀元)을 쓰고 있고, 사전에 보면 단군은 국조(國祖)로 받드는

태초의 임금이라 했다. 이때 '檀'을 박달나무 '단'으로 읽는다. 원래 동방은 목기(木氣)가 왕성한 곳이었다고 하는데 박달나무의 인연에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신시의 박달나무를 단순하게 한 그루의 통상적인 나무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태백산 신단수는 신목으로서 그 덕을 칭송한 다음 시를 우선 음미할 필요가 있다.

울울창창 백단목	
鬱鬱蒼蒼 白檀木	
운수재자 환인씨	
云誰栽者 桓仁氏	
요야순야 오불문	
堯也舜也 吾不聞	
막막운해 개신시	
漠漠雲海 開神市	
지불삼천계	枝拂三千界
향증구만리	香蒸九萬里
천지사기목	天地似其木





▲식재된 자작나무의 아름다움. 광릉시험림.  
1985. 7. 20

일월축정신      日月蓄精神  
우피산목하      于彼山下  
내강신성인      乃降神聖人

이 시에 백담목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자작나무를 뜻하는 풀이가 있고, 한자로 화목(樺木)으로도 말한다. 그리고 참고로 거제수 나무를 황담목(黃檀木)으로 말하고 모두 박달나무와 가까운 식물학적 인연이 있다. 먼저 이 시를 풀이해 본다.

울울창창한 백담목.  
누가 심었나, 환인씨이지.  
요와 순을 들어보지 못했다.  
막막히 넓은 구름바다에



▲사스래나무(岳樺), 백두산에서. 1989. 8. 20

신시를 열고.  
그 나무의 가지는  
삼천세계를 덮었으며,  
나무향기는 구만 리에  
이르렀다.  
하늘과 땅이 그 나무의  
크기로서,  
해와 달이 정신을 모은  
저 산 나무 아래에.  
신인이 나타나셨네.

이때의 백담목을 박달나무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 시가 식물학적 고찰을 했다하기 보다는 시작(詩作)의 음울 등을 생각해 해서 백(白)자를 붙인 것으로 안다. '백'은 '밝다' 또는 '깨끗하다'는 뜻이 있고 해서 앞에 붙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자작나무보다는 박달나무로 보자는 것이다.

이 시에 있어서 신시가 개설된 곳의 나무는 우주를 덮는 개념적

인식에서 출발한 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천 세계라든가 9만 리 등등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우주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속성을 담고 있다. 우주목 또는 세계목에 대하여서는 필자가 이미 '나무백과 3권 들때 나무조'에서 풀이한 바 있다. 우주목의 개념은 유럽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개국 신화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신단수'라는 것은 이 우주와 해와 달 그리고 별 그리고 인간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삼라 만상을 포용하는 개념상의 나무로 이해된다. 그 나무는 박달나무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아오는 박달 나무라 하는 하나의 단순한 '노거목'으로 해석할 것은 못된다고 본다. 엄청난 제원(諸元)을 가지고, 생명의 체계를 다스리는 나무라고 볼 수 있다.